



도-정부-기업, 피지컬시 육성 머리 맞대

새만금서 한성숙 총리 주재
투자 활성화 기업 간담회
현대차 새만금 투자 계획
정부·지자체 협력방안 모색
한 총리, 이원택 지사 등과
새만금 국가산단 현장 점검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기업 관계자들이 새만금에 모여 투자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4일 새만금 개발청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새만금 투자 활성화 기업 간담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첫 전북 방문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새만금 투자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현대자동차 투자를 계기로 피지컬 시와 로봇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개발청 및 관계 중앙부처 관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새만금 투자기업, 도내 피지컬 시 관련 기업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만금 개발 추진 현황과 기업 지원 방안, 투자 계획, 첨단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 등이 발표됐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들의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기업들은 투자와 공장 운영 과정에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지역 일정으로 24일 새만금을 방문한 가운데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새만금개발청에서 투자 활성화 기업 간담회를 열고 국가산단 7공구 현장을 찾아 조성 현황 등을 살펴보고 있다.

서 겪는 인허가 절차의 복잡성, 산업 기반시설 확충, 전문인력 확보, 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의 조기 인착을 위해 기업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앞으로 입주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투자 단계별 수요에 맞춰 인허가, 기반 시설, 인력 양성, 연구개발 지원 등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새만금개발청과 관계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전 과정을 면밀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차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되고 피

지컬 시와 로봇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 생태계가 새만금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북도가 책임 있는 투자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친 한성숙 국무총리와 이원택 도지사 등 참석자들은 현대자동차 투자 예정지가 포함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 현황과 향후 개발계획을 보고받고 현장을 둘러보며 투자 여건을 점검했다. /이만호 기자

“도민 체감성장 역량집중”

고정삼 신임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핵심 현안 차질없이 추진할 것” 강조

전북특별자치도 제22대 경제부지사에 고정삼 신임 부지사(사준D)가 공식 취임하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고 부지사는 지난 24일,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부임을 신고한 뒤 간부공무원들과 상견례를 갖고 첫 일정을 시작했다.

민선 9기 출범 이후 첫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그는 국가예산 확보와 기업 투자 유치, 미래산업 육성 등 전북의 주요 경제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취임사에서 고 부지사는 “전북은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성장동력을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도민이 ‘내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는 성장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부처에서 쌓은 경험과 정책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가정책과 전북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국가예산과 제도 개선, 기업 투자가 지역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과 산업현장 등 다양한 경제 주체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피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전북의 핵심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해서도 “직급과 부서의 벽을 낮추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소통으로 신뢰를 쌓아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1969년 전북 고창 출신인 고 부지사는 휘문고와 고려대학교 일어 일본학과를 졸업했으며, 일본 히토쓰비시대학교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농림부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뒤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대통령실 정부수석비서관실, 국무조정실 광복70주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등에서 근무했다.

이후 기획재정부 재정현안협업팀장과 윤리경영과장, 기업운영기획과장, 감사담당관을 역임하며 예산·재정 분야의 전문성을 쌓았고, 경찰청 감사관과 대통령직속 기본 사회위원회 기획운영국장을 맡아 정책기획과 조직 운영 경험도 축적했다.

전북도는 고 부지사가 중앙정부에서 쌓은 풍부한 행정 경험과 예산·재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새만금 개발, 기업 투자 유치, 미래 신산업 육성 등 전북의 핵심 경제 현안 추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권 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교통량이 지난해보다 5.4% 증가한 29만8,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교통 혼잡과 사고 예방을 위해 26일부터 8월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는 여름 휴가철 이용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17일간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책 기간 전북권 고속도로 하루 평균 교통량은 29만8,000대로 예상되며,

여름 휴가철 전북권 고속도로 하루 29만8000대 이용 예상

내달 1~2일 가장 혼잡... 도공 전북본부, 특별교통대책 시행

지난해보다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휴가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8월 1일에는 하루 39만8,000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8월 1~2일이 교통 정체와 혼잡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도로공사는 교통소통과 사고예방, 휴게서비스, 긴급대응 등 4개 분야를 중

심으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교통소통 대책으로는 주말 혼잡이 예상되는 서해안고속도로 동서전분기점~군산내동북 7.3km 구간에 양방향 승용차 전용 임시 갱길차로를 운영한다. 또 확장공사가 진행 중인 동서전분기점 서울방향에서 공주방향 연결로는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대 운

영한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김제·군산요금소 등 12곳에 대형 구난차량을 사전 배치하고, 안전순찰 근무를 기존보다 확대한다. 아울러 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집중호우와 폭염에 대비해 비상인력 332명과 장비 283대를 확보해 긴급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휴게서비스도 강화된다. 군산휴게소

등 19개 휴게소에서는 직원 화장실 88칸을 일반 이용객에게 개방하며, 졸음 쉼터에는 그늘막을 설치하고 시설물 점검과 청소를 강화한다. 휴게소와 주유소에서는 생수와 워셔액 제공, 물놀이용품 추첨 등 다양한 고객 이벤트도 진행한다.

또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전북본부 교통센터에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교통상황과 돌발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특별근무 인원을 평소보다 늘려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에는 교통량 증가와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장거리 운전 시에는 2시간마다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근 기자

하계 정기휴가에 따라 8월 3일자까지 신문 쉽니다.

